

일곱 영과 우리의 영

메시지 4

영 안에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고
내주하는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함으로 복음을 전파함

성경: 롬 12:11, 딤후 1:6-7

I.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태우고 에너지를 주시는 태워 버리는 불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—히 12:29, 겔 1:27, 단 7:9-10, 눅 12:49-50, 살전 5:19, 계 4:5

- A.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—히 12:29, 신 4:24, 9:3.
- B. 주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. 이 불은 영적 생명의 충격력이다—눅 12:49-50.
- C. 성령은 불로 상징되시고, 하나님이 일곱 영은 보좌 앞에서 타오르는 일곱 등불이다—겔 1:4, 행 2:3-4, 살전 5:19, 계 4:5
- D. 신성한 불, 타오르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며 우리 목숨도 희생할 수 있게 만든다—롬 12:11:
 - 1.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타오름에서 나와야 한다. 이 불이 우리 속에서 에너지와 추진력과 충격력이 되어야 한다. 이 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봉사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—출 3:2, 4, 6, 레 6:13, 눅 12:49
 - 2. 일곱 등불이신 일곱 영의 불타오름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—계 4:5, 단 11:32b

II. “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.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.”—롬 12:11:

- A. 교회생활의 실행에 관해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고(1절)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고(2절)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. 오직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야만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다.
 - 1. 교회생활 안에 있는 혼란 문제들은 우리의 몸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에 곧 우리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데, 영 안에서 미지근한 것에 있고, 또한 우리의 생각이 의견을 표현하는데 강하다는데 있다.
 - 2.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이 드러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불탈 때에 봉사가 틀림없이 성공적일 것임을 보여준다. 바로 이것이 교회생활이 강해지는 비결이다.
- B. 만일 우리가 섬기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몸이 드러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열심내고 불타올라야 한다—롬 12:11, 비교 행 18:25
 - 1. 우리의 영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사람의 영 곧 연합된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.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항상 불타야 하고 타올라야 한다—비교 딤후 1:6-7
 - 2. 우리가 전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을지라도 한 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의 영은 차갑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면 여전히 섬긴다해도 속에 활기가 없게 된다.
 - 3. 비록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지 않으면 주님도 불타실 수 없다. 우리가 영 안에서 열심이고 불탈 때라야 주님도 우리 속에서 불타실 것이다.
- C. 사도 바울은 “영 안에서 불타라”고 말한다—롬 12:11
 - 1. 여기서 ‘~라(be)’ 는 단어는 우리가 주도(술선)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.
 - 2.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는가 아닌가는 우리의 책임이지 그 영의 책임이 아니다—딤후 1:6-7, 비교 고전 14:32, 사 64:7.
 - 3.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데 수동적이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. 우리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내주하시는 영께서도 우리를 따르실 것이고 그분의 무한한 풍성과 무진장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—롬 8:6, 9-11.
- D. 영 안에서 불타는 유일한 요구조건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—비교 엡 5:18, 6:17-18

1.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.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될 것이고,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속에서 열심을 내고 불타게 될 것이다.
2.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영 안에 불타오를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된다. 우리가 진정으로 영 안에서 불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바보들이 된다—마 6:6, 고후 5:13, 고전 4:10

Ⅲ. “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.”—딤후 1:6-7:

- A. 디모데 후서 1:6-7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.
 1. 우리가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하만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—딤후 1:6-7
 2.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불이 있다. 사실상 우리의 영이 바로 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.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작은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.
 3.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길은 우리 존재의 세 층을 여는 것이다. 우리의 입을 열고, 우리의 마음을 열고, 우리의 영을 열어야 한다.
 4. 우리의 마음과 영과 함께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“오 주 예수님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속에서부터 여는 것이다. 그럴 때 불이 타오른다.
 5.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깊은 속에서부터 “오 주 예수님”이라고 거듭해서 불러야 한다. 그러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.
 6. 부채질하는 것이 있을 때 마다 늘 우리 속에서 일으켜지는 불을 끄려고하는 사탄과의 전투가 생긴다. 오늘날 찬물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불길을 끄려고 한다.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. 그러면 우리는 가장 높은 사람들, 특등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.
- B. 우리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—딤후 1:6
 1. 어떤 것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하는 비결을 알아야 한다.
 2.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관해 말해왔다. 이러한 말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존중되어왔다. 그러나 이 길을 받아들이도록 교회들을 분발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다.
 3.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에 부채질하여 불타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상기시켰다. 은사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 우리는 그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—딤후 1:6
 4. 각지 교회에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불타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—행 18:25.
 5. “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얻는데 불타오르기를 꿈꿉니다. 나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잊을 수는 있지만, 이 부담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.”—위트니스 리 전집, 1991-1992, vol. 3, p. 171.